

“4조 클럽” 내가 먼저”... 건설사, 도시정비 막판 수주戰

대우·포스코·GS·현대건설
현재까지 수주 3조클럽 입성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등
연말 수주 경쟁 치열할 듯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 ‘4조 클럽’ 입성을 위해 막판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클럽’에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수주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대우건설은 3조7774억원을 수주하며 그 뒤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창사 이래 최초로 한 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원을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6일 과천주공5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냈으며 올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상계2구역 재개발 등 13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3조6916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서울 신도림우성 3, 5차 리모델링 사업을 따냈으며 송파 가락쌍용 1차 등 17건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1조 이상 수주 실적을 개선한 배경과 관련해 ‘리모델링 특화 전략’을 꼽았다. 포스코건설의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는 2조5900

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꾸려 23개 단지, 4조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올린 바 있다.

GS건설도 이달 중순 부산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과 원주 원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3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연초부터 5540억원 규모의 창원 신월1구역 재건축 등 11곳에서 사업을 수주해 현재 누적 수주액은 3조542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3조1352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2년 연속으로 3조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공사금액만 1조7000억원이었던 한남 3구역 사업을 따내며 4조7383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올해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달 10일 충남 아산 용화 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외에도 성동구 금호동 벽산아파트 리모델링, 부산 범천4구역 재개발사업, 전주 하가구역 재개발사업, 용인 수지 신정마을 9단지 리모델링사업, 대전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남은 사업장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동작구 흑석9구역, 관악구 신림1구역, 은평구 불광1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신림1구역에 컨소시엄 형태로 단독 입찰했고,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흑석9구역, 대우건설은 불광1구역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내달 분양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반경 1km 내
오피스텔 420실·상업시설로 구성
2·5호선 연장선 등 철도 호재 산적



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투시도. /DL이앤씨

DL이앤씨는 오는 12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420실 1개동과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전용면적별로는 ▲35㎡ 396실 ▲36㎡ 12실 ▲43㎡ 12실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김포골드라인인 풍무역 반경 1km 내에 있다. 풍무역에서 김포골드라인 노선을 이용하면 두 정거장만에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주요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평이다.

이밖에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선도 계획됐다.

인근에는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노브랜드 김포풍무점, CGV 김포점 등 생활 편의시설과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종합운동장 등 문화시설이 가깝다. 반경 700m 내에 신풍초, 풍무초, 양도중, 풍무고 등이 위치했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주변의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김포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상징성과 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호반그룹, 300여명 대규모 공채



지속 성장, 일자리 창출 도모
그룹·계열사 공개채용 진행

호반그룹이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24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신입(건축·전기·설비·안전·토목·상품개발) ▲경력(현장소장·건축·전기·설비·안전·토목·품질관리·보건·법무·공정거래·기획·감사·IT·회계·설계) 부문에서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현장소장 경력이 있는 퇴직자는 우대한다.

또한, 대한전선, 호반호텔엔리조트, 호반골프, 호반프라퍼티, 삼성금거래소, 대아청과 등 호반그룹 계

열사에서 채용이 진행된다.

이번 채용은 관련학과 전공자나 관련 경험자 등 호반그룹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채용은 서류전형, AI역량평가(신입사원 해당),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검진,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호반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 계열의 채용정보는 각사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그룹은 건설, 제조, 종합레저,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호반건설 등 건설계열의 진행 프로젝트도 많다”며 “이번 공채에 우수한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미래에셋 글로벌X, 런던거래소에 ETF 7종 상장

한국계 운용사 최초 유럽 ETF 진출
최다 종목 테마형 공금자로 발돋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ETF 전문 운용사인 글로벌 엑스(Global X)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런던 증권거래소에 ETF 7종목을 상장했다.

이번에 상장한 ETF는 각각 ▲로보틱스 &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친환경기술 ▲자율주행 & 전기차 ▲전자상거래 ▲핀테크 ▲사물인터넷을 테마로 한다.

Global X는 지난해 12월 런던 증권거래소에 ▲원격의료 & 디지털헬스(Global X Telemedicine & Digital Health UCITS ETF, EDOC) △비디오게임 & e스포츠(Global X Video Games & Esports UCITS ETF, HERU) 테마 ETF를 상장하며 유럽 ETF 시장에

진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7종목 상장으로 총 12종목을 유럽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Global X는 한국계 운용사 중 최초로 유럽 ETF 시장에 진출했다.

Global X 유럽 진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TF 시장을 공략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ETF 리서치 업체 ETFGI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유럽 ETF 시장 규모는 1조5690억달러로, 전세계 ETF 시장에서 15.7%를 차지한다. 6조9760억달러 규모로 전세계 ETF 시장 중 69.9%를 차지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Global X는 미국 ETF 시장에서 11위 규모에 달하는 ETF 전문 운용사다. 특히 다양한 테마형 ETF를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올해 수탁고가 200억달러

에서 400억달러로 2배 증가했다.

Global X는 이번 상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최다 종목 테마형 ETF 공급자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루이스 베루가 Global X 최고경영자(CEO)는 “Global X는 시장을 선도하는 ETF 운용사로 거듭나기 위해 수년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세계에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며 “Global X는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세계 테마에 12종 테마형 ETF로 투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Global X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다. 2009년 첫 ETF를 시장에 선보였으며, 혁신적인 상품을 바탕으로 미국 ETF 시장에서 라이징스타로 주목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Global X를 인수했다. Global X 운용규모는 인수 당시 105억달러에서 현재 436억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양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공급

최고 47층 3개동, 전용 84㎡ 702실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투시도 /주한양

㈜한양은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청라국제금융단지 B5-2블록에 들어서는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지상 최고 47층 3개동, 전용면적 84㎡ 702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타입별로는 ▲84㎡A 234실 ▲84㎡B 234실 ▲84㎡C 234실이다.

약 165m 높이에 옥탑 구조물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며, 커튼월록, 석재, 테라코타 패널 등 외벽 특화 마감재를 적용했다. 저층부에는 유선형 디자인의 상가를 설계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조식 서비스, 교육 서비스,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예약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이 들어선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키즈집과 어린이 도서관도 마련된다.

수자인 스마트홈 시스템(IoT)을 적용해 스마트폰으로 조명·난방 제어가 가능하며, 주차위치 안내,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도착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통은 도보권에 7호선(예정) 신설역 시티타워역(가칭)과 청라국제업무지구역(가칭)이 있다.

청약은 오는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3일, 당첨자 계약은 12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6년 3월이다. /정연우 기자